

날마다 출근하는 작가들... 집단 창작모임 '필'

판타지 소설·게임 '한류' 꿈꾼다

날마다 출근하는 작가들. 일반적으로 소설가나 시나리오 작가 하면 한적한 곳에서 홀로 창작에 골몰하는 모습을 떠올리지만 이들의 일상은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광주시 북구 두암동 작업실에 오전 9시 출근, 12시30분까지 개인작업, 오후 2시까지 식사 및 운동(산책), 2시부터 4시까지 작업 마무리, 4시 30분부터 정리 및 토론, 5시 30분 퇴근.

판타지 소설과 게임 시나리오를 전문적으로 쓰는 작가들이 꾸린 '창작집단 필'(대표 정성민)은 광주전남의 대표적 문화예술기업으로 게임 업계나 출판업계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단체다.

'필' 멤버는 '업그레이더'(동아&발해 퍼블)로 이름을 날린 정 대표를 비롯해 '와일드문'(파피루스 디앤씨미디어 퍼블)을 출간한 정기



2일 오후 개인작업을 마친 소속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판타지 소설 소재와 창작기법 등에 대해 토론했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목, 정성민, 박성봉, 박동신, 정기원, 이도연씨.

/위정림기자 jrwi@kwangju.co.kr

광주 두암동에 작업실... 소설·게임 시나리오 써 '업그레이더' '와일드문' 등 히트... 연 5억원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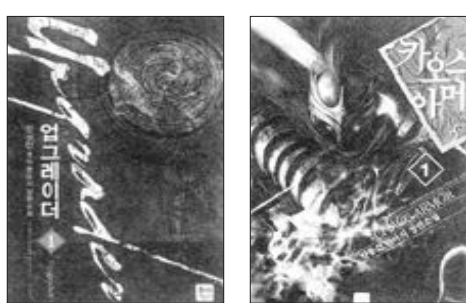
원(45·필명 나한), '카오스아머'(동아&발해 퍼블)로 알려진 박동신(37), 박성봉(34), 이도연(32·필명 ING), 김영목(31) 총 6명이다.

'필'은 지난 2005년 판타지 소설 '이계정벌기'로 대박을 친 정 대표의 제안으로 결성됐다.

"재 책이 많은 사랑을 받기는 했지만 판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가 광주전남스토리텔링협회에서 활동하던 댜 때 같은 일을 하는 이들과 알고 지내게 됐고 '같이 한번 일해보자' 의기투합, 2006년 5월 공식 출범하게 됐죠."

소속 작가들의 하루는 직장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출퇴근을 비롯한 철저한 자기관리, 끊임없는 독서(한 달에 30권 이상)는 소속작가라면 꼭 지켜야할 규율이다. 엄격한 기업이기에 '필'은 업계에서 지명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오고 있다.

"게임이나 영화업계에서 시놉시스가 당선되거나 스토리텔링 주문이 들어오면 눈코 뜰 새가 없죠. 보통 1주일 정도는 꼬박 밤샘 작업을 합니다. 의견 충돌도 있고 바쁜 과정이지만 공



정성민 작 게임소설 '업그레이더'와 박동신 작 퓨전판타지 소설 '카오스아머'.

동작업을 하다보면 정도 많이 쌓이죠."

'필'은 2006년 '아마겟온 온라인 시나리오 작업'을 시작으로 2007년 '썬바이 온라인 스크립터 작업' 그리고 지난해에는 '삼국 제왕전 스크립터 작업' 등 굵직한 작품을 맡아 해오고 있다.

'필'은 공평정대한 투자와 이익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각자 지분을 투자했고 자신의 개인 작품의 수익은 개인 몫이며 공동작업 수익은

똑같이 나눠 갖는다. '필'의 수익은 연간 5억원 수준. 연 1억 5천만 원을 내는 정기원씨를 비롯, 1억원대 작가가 2명이며 평균 3~4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다. 공동 작업의 수익은 연 3천만원정도다.

판타지 소설로 권당 250만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이도연씨는 "현재의 보수나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며 "집단 창작이 소재를 발굴하는 데나 글쓰기 능력을 배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학교까지 그만두고 '필'에 합류한 막내 김영목씨는 "아이디어를 내고 토론해가며 글쓰기를 하면 작업 능률도 오르고 부족한 면을 보완할 수 있어 좋다"고 말한다.

'필'은 원래한 꿈이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겨냥한 게임 판타지 소설을 써서 해외로 수출을 하는 것이다.

정대표는 "세계 IT환경이 좋아지면서 많은 나라 젊은이들이 온라인 게임을 즐기고 있다"며 "한반 앞선 온라인 문화와 문화적 상상력을 가미하면 게임 판타지 소설도 하나의 한류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판타지라는 환상 속에서 창작에 전념하고 있는 젊은 그들, 그들은 지금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물은 흐르고 꽃은 피네

송필용 초대전... 24일까지 시안갤러리

한국 전통문화 속에 녹아 흐르는 풍류와 풍취를 현대적 필치로 그려온 서양화가 송필용씨가 24일까지 시안갤러리 개관 1주년 기념 초대전을 갖는다.

'수류화개(水流花開)-물은 흐르고 꽃은 피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송씨는 금강산 등지의 풍경 즉 폭포와 달, 매화가 조화를 이루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송씨는 "흐르는 물처럼" 연작 등을 통해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자신을 관조하고 고찰하던 옛 선비들의 호연지기를 들춰내면서도 두툼한 현대식 안료들로 질감을 표현하는 독특한 구

성의 '송필용류' 풍류도를 완성했다.

이번 출품작은 '금강산수'등 금강산 기행에서 화재를 취해온 작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마치 계절의 '금강전도'를 보는 듯, 대범하게 내려 그른 필선들에서 힘을 느낄 수 있으며 승천하듯 솟구쳐 오르는 봉우리, 또 골짜기 계곡에는 실낱같은 폭포수를 흘러내도록 배치해 멈추지 않는 생명의 순환을 표현했다.

송씨는 전남대 미술교육과와 홍익대 대학원 출신으로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전 등에 참여했다. 문의 062-573-0177.

/오광림기자 kroh@kwangju.co.kr



'흐르는 물처럼-생명의 순환'

한국민속학자들 대거 광주에

12·13일 시민민속박물관서 '2009 하계학술대회'

한국민속학회(회장 나경수)와 광주시립민속박물관(관장 서종환)이 공동주최하는 2009 하계학술대회가 12~13일 이틀간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국민속학의 쟁점 중의 하나인 '가면극/탈춤의 형성-전개 문제'에 대한 여러 시각을 집중 조명하고 관련학자들이 대거 참여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제하 조선시대 '한국 탈춤의 자생적 형성과 전개에 관한 재론', 전경옥 교수(고려대)가 한국가면극의 계통을 보는 서로 다른 시각을 주제 발표한다.



나경수 회장 전경옥 교수

주제발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두 발표자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 각각 가면극과 탈춤이라는 용어를 달리 사용하며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주제발표에 이어 정형오·사진실 교수(중앙대), 윤광봉 교수(일본 히로시마대), 이병욱 교수(영선대), 허

영호 교수(고려대) 등이 참여 두 발표자와 함께 토론을 펼친다.

둘째 날인 13일에는 흥태한 교수(중앙대)가 '무신도를 중심으로 한 부군당의 연원 모색', 염원희 교수(경희대)가 '무속신화의 여신 수난과 신적능의 상관성 연구', 서해수 교수(전남대)는 '부처 자원의 가치와 디지털 아카이빙 체계 설계' 등 최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젊은 학자들이 자유주제로 논문발표와 토론을 펼친다.

한국민속학회는 1955년 창립되어 5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기관지 '한국민속학'을 연 2회 간행하고, 현재까지 180여 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문의 019-324-3240.

/오광림기자 kroh@kwangju.co.kr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학술심포지엄

12일 광주교육대 교육대체관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허성관)이 주관하는 제2회 학술심포지엄이 12일 오후 1시 광주교육대 교육대체관에서 열린다.

'기축옥사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기축옥사'의 역사적 의미가 무엇이며 호남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철학, 사학 분야의 교수와 연구원들이 참가해 열린 토론을 벌인다.

김동수 교수(전남대 사학과)의 '기축옥사와 호남사람', 안동고 연구원(조선대 한국학자료센터 전임연구원)의 '정개정 사상에서 '절의' 철학적 함의' 등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문의 062-234-2727.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시 낭송회

12일 광주북구일곡도서관

광주북구일곡도서관(관장 안미영)이 12일 오후 7시 '제1회 작가와 함께하는 시 낭송회'를 마련했다. 작가와 함께 하는 시낭송회는 오는 11월까지 실시되며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문학작가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번 시낭송회에서는 '장미와 시'라는 주제로 김춘수 시인의 '구름과 장미' 김광수 시인의 '장미', 전봉건 시인의 '장미의 의미' 등 8편의 시를 작가와 전문낭송가가 낭송하게 된다. 특히 작가 고재종 시인이 참석해 자작시 '연비'를 낭송할 예정이다.

또 오카리나, 색소폰, 클래식 기타 공연도 함께한다. 문의 062-575-3457~8.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청소년을 위한 열린 음악회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연주회, 13일 문예회관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단장 박호진·사진) 102회 정기연주회가 13일 오후 6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청소년을 위한 열린 음악회'로 꾸리는 이번 연주회에는 합창단뿐 아니라 첼로·피아노·바이올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요슬렘프' 등을 들려주며 최예린·김세민(피아노), 변재홍(첼로), 황운영·백지현(바이올린), 정푸른(성

있는 예술 꿈나무들이 출연한다. 합창단은 이날 공연에서 '구주 예수 의지함', '알라딘과 요슬렘프' 등을 들려주며 최예린·김세민(피아노), 변재홍(첼로), 황운영·백지현(바이올린), 정푸른(성

악), 김슬기(가야금 병창) 등이 슈베르트의 '죽음의 작품 90의 2번', 라흐마니노프의 '전주곡 작품 3의 2번', 어플레이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흥보가 중 '제비노장' 등을 선사한다.

또 요슬렘프케스트라는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테마곡 등을 들려준다. 문의 062-529-1125.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주)국민법률경매 (National Law Auction) featuring a logo, contact information (0621364-8700), and a detailed table of legal services and fees across various districts like Gwangju, Gyeongju, and others.